

국내 첫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AZ 백신 접종 후 12일 지나 심한 두통에 경련 정은경 "조기 발견해 적절 치료하면 회복 가능" 국내 100만명당 0.3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상반응 신고 2만7352건·신고율 0.36%...여남

국내에서 처음으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가 발생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30대 취약시설 종사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27만 건 중 우리나라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확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자는 취약시설에 종사하는 30대 A씨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12일이 지난 5월9일 아침 심한 두통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두통이 지속됐다. 사흘 후인 5월12일에는 경련이 동반돼 입원했다.

담당 의료진은 입원 후 진행한 검사 등을 통해 뇌정맥혈전증과 뇌출혈, 뇌전증을 진단했다. 예방접종력을 고려해 추진단에서 배포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 지침'을 참고해 적절한 초기 치료를 실시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호전된 상태이며,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추진단측 설명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5월27일 A씨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를 했다.

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30일 혈액 응고장애자문단 회의를 열어 A씨의 사례가 임상적으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사례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이튿날인 31일 확정검사 결과 최종 양성 확인됐다.

추진단은 A씨에 대해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신속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170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할 바 있다.

의료기관에는 이상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집중력을 '긴강보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확인한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히 치료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



복 가능한 질환"이라며 "예방접종 후 4~28일 사이에 심한 두통과 지속적인 복부통증 등 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일 때 의심해야 한다.

국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는 100만명당 0.3건이다. 유럽연합(EU) 10건, 영국 9.5건 등 외국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추진단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대한신경과학회·한국혈전지혈학회 등 전문학회와 협

력해 진단·치료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추가로 도입되는 모더나와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강화된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두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이상반응 신고를 하고, 접종자나 보호자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 및 보상도 다른 백신들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전문 상담을 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내에 전문상담팀을 시범 운영한다. 전문상담팀은 의료인(간호사)으로 구성되며, 중증이상반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신고와 인과성 평가·보상심사 절차에 대해 24시간 1차 상담을 제공한다. 중대한 이상반응 내용이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발신해 상담한다.

김민정기자

보성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협의회장 이취임식

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지난 5월2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각 과 계장,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협의회 협의회장 취임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문성삼 협의회장 취임식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보성경찰서 '20년 업무추진 실적 및 '21년 주요추진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치안유지 대책,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경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성삼 신임 협의회장은 "전임 박재원 협의회장님의 기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여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 다짐했다.

보성=김복순기자

무안소방, 초당대학교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규)는 5월26일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했다.

이날 교육은 '항공서비스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소방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 생활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 '불나면 대피먼저'와 화재대피 요령 홍보 ▲는·발두령 및 농부산물 소각행위금지무 이 이뤄졌다.

무안소방서 교육담당 강지영 강사는 "항공서비스에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어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대상에 맞춤형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담양경찰,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사기 피의자 검거

담양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면 편취한 피의자 A씨(19세, 여)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담양읍 소재 포 편의점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천88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8천84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균경찰서장은 "저금리 고액대출을 이유로 휴대폰 앱(APP)설치 및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라며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 홍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남부소방,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책 추진

광주 남부소방서는 여름철을 앞두고 태풍·집중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책추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선제적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풍수해 단계별 체계적 긴급구조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풍수해 대비 수중·동력펌프 등 수방·구조·구급장비점검 및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지원·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사전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관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남부소방서는 태풍·집중호우기간 126건 출동으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시설물 침수에 따른 배수 지원 등을 실시했다. 풍수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으로 시민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풍수해를 대비해 가용소방력(인원·장비)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예방·저감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걸려도 또 하는 '몰래 유흥업소'...두달간 4571명 적발

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총 942건 단속 집합금지 등 감염병 위반 4571명 적발

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의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을 8주째 진행한 결과, 5000명이 넘는 인원을 적발하는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4500명을 넘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전반기까지 총 942건을 단속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적발된 누적 인원은 5207명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불법영업 행위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554건(457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음악산업법 위반 338건(398명), 식품위생법 위반 49건(223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 등이다.

단속 8주차만 보면 108건, 458명

이 추가로 적발됐다. 7주차 단속 현황(77건·377명)과 비교하면 건수와 인원이 모두 증가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25일 오전 1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업주 등 30명이 단속됐다. 해당 업주는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을 감안해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기동대를 적극 활용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단속 점검이 아닌



실효적인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시간 등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이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